

광주 제조업 체감경기 다시 먹구름

광주상의, 3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 19포인트 하락한 87 제조업체 63% "매출 부진"...기업 3곳 중 2곳 "채용 계획 없다"

지역 제조업체들이 경기전망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2분기 경기전망을 긍정적으로 봤던 기업들은 3분기에 먹구름이 잔뜩 깔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42포인트 끌어올렸던 경기지수를 3분기에 19포인트 끌어내리며 비판적으로 전망한 것이다.

15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21일까지 광주지역 제조업체 134개사를 대상으로 '3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전 분기(106)보다 19포인트 하락한 87로 나타났다.

올 1분기 전망 64에서, 2분기 106으로, 42포인트 상승했다. 3분기에 다시 19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BSI는 기업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기준치(100) 이상이면 향후 경기가 전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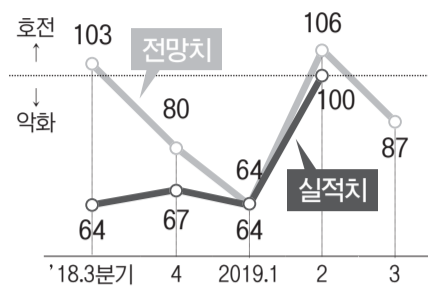
만이면 반대로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은 것을 뜻한다.

제조업 체감경기가 다시 위축된 것은 내수 침체와 대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2분기에 호전된 완성차 생산이 휴가와 노사 임단협 등의 영향으로 주춤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라고 광주상의는 분석했다. 이어 대기업의 가진 발주 물량 또한 예년 대비 감소세에 있는 점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업종별로는 IT·전기·전자(100)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3분기 전망을 어렵게 봤다.

자동차 부품(75→89)은 기아차 신차 셀 투스 양산 호재에도 불구하고 여름휴가로 인한 조립일 수 감소, 노사 임단협 리스크 등이 체감경기에 반영됐다. 기계(123→94)는 마·중 무역 긴장 지속과 국내 투자

■광주 제조업체 분기별 기업경기전망(BSI) 추이



참제로 인한 수요 둔화 우려가 경기전망을 어렵게 했고, 철강·금속가공(89→69)은 건설 등 주요 수요산업 침체와 저가 제품과의 경쟁 과다, 화학·고무·플라스틱(113→80)은 수주 감소와 안전규제 강화, 식음료(154→75)는 내수 침체와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을 경기 악화 요인으로 들었다.

지역 제조업체들은 경영 애로에 대해 63.4%가 '국내외 경기둔화로 인한 매출(수출) 부진'을 꼽았다. 이어 '임금 상승 등 비용부담 증가'(23.1%), '자금확보 애로'

(7.5%) 순이었다.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에 대해서는 66.4%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유(중복 응답)는 '현재 인력으로 충분'(66.3%), '국내외 경기전망 악화'(31.5%), '최저임금 등 인건비 상승'(24.7%) 등을 꼽았다.

자금조달 상황에 대해서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33.6%로, 전분기(26.2%)보다 높아졌다. 자금사정 악화의 유에 대해서는 '판매부진 등 경영환경 악화'(51.1%), '영업이익 감소 등 수익성 저하'(33.3%), '금융권의 까다롭고 복잡한 심사 절차'(11.1%) 등을 들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가 더해져 향후 경영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대내외 불안요인 해소와 기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효과적이고 적시성 있는 정책으로 내수와 수출이 타격받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정훈 기자 jwpark@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82.48 (-4.18)
- ↑ 금리(국고채 3년) 1.43 (+0.01)
- ↓ 코스닥 674.79 (-6.38)
- ↑ 환율(USD) 1179.30 (+0.10)



박석현 광주국제청장 취임 박석현 제53대 광주지방국제청장이 15일 정 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 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박 청장은 세정 전반에 대한 개혁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제행정을 펼쳐나가고, 실질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국제청 제공>

광주은행 "영업력 확대·금고 영업 강화 최선"



송중욱(왼쪽 세번째) 광주은행장이 부점장들에게 현장영업 강화를 당부하며 구두를 선물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영기 전남영업부장, 박정민 하남공단 1급응센터장, 김재춘 서울영업부장. <광주은행 제공>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개최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15일 오후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송중욱 은행장과 임원, 부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영전략회의에 앞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초청해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라는 주제로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에서는 '민선7기 시정방향', '광주형 일자리',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굵직한 광주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비대면 채널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직원들의 우수사례 발표 시간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금융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채널 영업 활성화 방안을 공유했다. 또한 2019년 상반기 경영실적을 보고

하고, 핵심예금 유치와 신용카드, 퇴직연금 부분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지점의 우수사례 발표 시간을 갖고, 부서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송중욱 은행장은 하반기 중점 영업전략으로 광주·전남 영업 고도화와 내실 있는 수익성 중심 경영 강화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부점장들에게 현장영업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송 행장은 "올해는 100년 은행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상기하길 바란다"며, "지자체 금고 영업을 강화하는 등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광주·전남지역에 점포 추가 신설과 1층으로 이전을 검토하는 등 지역민의 편의성을 위한 점포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 금융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전남 농가소득 10년간 56% ↑ 지난해 평균 3948만원

지난해 전남지역 농가소득 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큰 폭을 보였지만 소득액은 260만원 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10년간 전남지역 농가경제의 변화'에 따르면 전남지역의 지난해 평균 농가소득은 3948만원으로 10년 전인 2009년(2522만원) 보다 56.6% 증가했다. 지난해 전남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4207만원) 보다 6.2%인 260만원 정도 낮다.

10년 동안 전남이 전국 평균보다 농가소득이 높았던 때는 2011년(3043만원)과 2017년(3966만원) 두 번 뿐이었다.

전남 연평균 농가 소득 증가율은 5.1%로 전국 연평균 농가 소득 증가율 3.5%에 비해 1.6%포인트 높았다.

2009년과 비교해서 농가소득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부문은 농업 보조금 등 이전소득(94.1%)이었다. 이전소득 다음으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농업외소득은 10년 새 83.4%(760만→1394만원) 뛰었다. 하지만 10년 간 전남지역 농업외소득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전남 농가의 가계지출은 34.2%(2009년 2279만원→지난해 3059만원) 늘었고, 농가 자산은 50.0%(2억1767만→3억2652만원) 증가했다. 10년 전 1993만원이었던 농가 부채는 440만원(22.1%) 오른 2433만원으로 나타났다. /*백희준 기자 bhj@



'광주 임팩트 명품 백화점'은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개막한 뒤 첫 주말 500여 명의 고객이 매장을 찾았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코치' 매장을 찾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최우노 제공>

광주 임팩트 명품 백화점, 수영대회 첫 주말 500명 방문

광주 임팩트 명품 백화점은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린 첫 주말 500여 명의 고객이 매장을 찾았다고 15일 밝혔다.

수영대회 기간(12~28일)을 이용해 매장을 찾는 단체 외국인 관광객이 늘었다는 것이 임팩트 백화점 측 설명이다. 늘어나는 외국인 고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

팩트 백화점은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통역 인력을 매장 곳곳에 배치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장에는 지난달 1일 개장 후 첫 주말 5000여명의 고객이 몰렸고 이후 하루 평균 50~60명이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

광산구 우산동에 약 5000㎡(1500평) 규모로 문을 연 임팩트 백화점에는 구찌,

페라가모, 프라다 등 60여 개 해외 명품 브랜드의 15개 매장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본관 2층 멀티샵에서 '버버리' 상품 60여 종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있으며 하나카드(12개월)·KB국민카드(10개월) 무이자 할부 구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의 062-946-3333.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www.aroma-life.co.kr

FACE 메이크업만 하는 시대는 끝!
이제는 **BODY** 메이크 **UP!**

☆☆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보정 속옷 12년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가공 원적외선가공

대리점·총판문의 **1588-2219**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경일로 235 V&G빌딩 서울사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도곡동 518-9)